

“코로나 시대 색다른 우리만의 이야기”

곡성중앙초 졸업생들 '내 머릿속 이야기' 출간

‘나도 작가 프로젝트’ 통해 기획 편집·디자인·출판 등 직접 제작 마을·사회문제 등 다양한 주제



곡성중앙초 졸업생들이 '내 머릿속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곡성중앙초 제공>

중학교 입학 앞둔 13살 아이들이 코로나19 시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펴냈다.

곡성중앙초등학교(학교장 강미다) 졸업생들은 최근 '내 머릿속 이야기'를 출간했다. 책은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협력해 진행한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됐다.

저자는 지난해 곡성중앙초 6학년 1반에서 공부한 학생 23명이다. 이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수업을 했으며, 학생들은 편집·디자인·출판·홍보 등 역할을 나눠 스.사.돌.사(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래를 사랑하는 6학년) 편집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1년 동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 한 해의 이야기는 물론 곡성 지역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글로 풀었다.

담임은 맡았던 송민영 교사는 “처음엔 간단한 아침 글쓰기 활동이었는데, 학생들이 '우리끼리만 공유하기는 어렵다'며 책 출간에 도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이후로 '당연하지 않게 된 것'부터 마을, 사회 문제 등 주제 폭도 점차 넓어졌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일기에 그치지 않고, 다소 무거운 주제까지 다뤘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곡성 지역에 대한 생각이 대표적이다. 지역에 꼭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지, 다른 지역으로 중·고등학교를 가는 게 옳은지 등도 고민했다.

“곡성에 사람이 많아지면 난장판이 될 것 같다. 사람이 많아져 공간이 좁아지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더 이상 깨끗한, 안전한 곡성은 없어질 것 같다.”(태진)

학생들이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환경, 학교 폭력, 수준별 수업, 블라인드 채용 등에 관한 생각도 적었다. 또 '제일 바꾸고 싶은 것'을 주제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나라, 나아가 세계에서 바라는 변화까지

다뤘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지구는 질병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이 지구는 연합해졌고, 사람들은 점차 발전하며 불편이란 고통을 잘 느끼고 있지 않아서 대처 능력이 저하되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대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지현)

송 교사는 “학생들은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상식이라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던진다. 그 엉뚱 발랄하면서도 색다른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며 “학생 스스로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 지역, 사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호남대 LINC+사업단, DJ센터와 인재 육성 협약



호남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양승학)은 최근 김대중컨텐츠센터(사장 정종태)와 지역 MICE 교육 협력 및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호남대를 비롯한 전남·조선·목포·동신대 등 지역거점 5개 대학이 참여했다. <호남대 제공>

동구,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치매 검진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9일부터 한 달여간 동구문화센터, 치매안심경로당, 마을사랑채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을 대상으로 '1:1 예약제 치매검진'을 실시한다. <광주 동구 제공>

‘학폭 없는 전남만들기’ 교육청·경찰 합동 간담회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경찰청과 지난 8일 목포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없는 전남,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양 기관은 오는 2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권역별로 교육청·경찰청·지자체 3개 기관 청소년 업무 담당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모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이 뉴스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및 뉴스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21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4차 산업시대에 뉴스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와 기술 개발, 융합 서비스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와 연계해 뉴스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된다. 참가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이며,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4월 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에게는 건당 3000만원 내외의 개발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올 한해 인큐베이팅을 거쳐 연말 시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재단은 인큐베이팅 기간에 뉴스빅데이터 분석API,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우수 서비스는 10월 말 언론사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모데이에서 공개된다. 공모기간은 3월19일까지이며 공모 홈페이지(www.startupcontest.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젊은이의 양지’ 배우 이지은 별세



1990년대 인기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 출연했던 배우 이지은이 별세했다. 향년 52세.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중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994년 모델로 데뷔한 이씨는 영화 ‘금홍아 금홍아’로 제16회 청룡영화제와 34회 대중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받았다. 1995년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순천주의 간이역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숨터	00 안녕? 나야(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헬로킷10 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재)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모세모
①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유지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불면해도 괜찮아(재)	20 영성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킷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③	10 역사저널 그날(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④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블 더블X 수상한 의뢰 30 풀짱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로컬 민주주의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테크	50 SBS 8 뉴스
⑧	30 누가 뭐래도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안녕? 나야	20 쓰리박 스페셜	00 나의 판타집
⑩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특선영화 좋아해줘	20 라디오스타	35 백중원의 골목식당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⑫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00 심야교과회 파일럿 다시보기	10 나이트라인 40 닥터 365 45 상성!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05:30 클래스 e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6:00 한국기행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6:20 세계테마기행	12:30 클래스 e	19:45 바닷가 사람들(재)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이미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7:15 출동! 슈퍼왕스	13:55 EBS 초대석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이토록 아름다운 수가 -물에서 산다, 인도네시아>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21:30 한국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숨은 볼 찾기 3부 기다렸다, 첫 수학>
08:3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6:15 올리엔 문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8:45 위안극장 리턴즈	16:30 당동당 유치원(재)	22:45 극한직업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 해와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3:5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꿈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모여라 당동당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0일(음 1월 27일 丁巳) ☎ 010-9790-8237

36년생 눈부신 발전이 있을 것이다. 48년생 옥석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60년생 미진했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라. 72년생 유동적이나 만큼 매사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4년생 어렵사리 얻은 것이 결과적으로 거추장스러워지겠다. 96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19, 17

37년생 천운신조로써 대길하는 운세이다. 49년생 과욕은 곧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61년생 포장을 잘 한다면 가치를 높일 것이다. 73년생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은 위험하다. 85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 될 수도 있느니라. 97년생 불일치로 인한 폐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4, 68

38년생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차 호전 되리라. 50년생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편리하리라. 62년생 급작스러운 단절이나 변화가 보인다. 74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86년생 내부적인 단속과 확실한 절차가 절실한 때이니라. 98년생 맹점이 보완되었을 때 성사 된다는 것을 알아. 행운의 숫자 : 85, 34

39년생 개성을 살린다면 훨씬 더 가치가 빛나리라. 51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 63년생 다시 한 번 검토한다면 허점이 보일 것이다. 75년생 상대의 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느니라. 87년생 취약점이 있는지 잘 살펴 보고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니라. 99년생 경색국면으로 접어드는 기세가 역력하다. 행운의 숫자 : 43, 87

40년생 가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52년생 옛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며, 구관이 명관이다. 64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76년생 생 식견이 풍부한 이와 함께 하자. 88년생 불완전하다면 백 번이고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 00년생 조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현상을 예견한 셈이다. 행운의 숫자 : 34, 53

41년생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53년생 미세한 조짐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상태이다. 65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라. 77년생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경계할 일이다. 89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한다. 01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행운의 숫자 : 31, 64

42년생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54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78년생 민첩한 손발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90년생 현실적이어야 한다. 02년생 함께 할 때는 즐겁겠지만 일단 벗어나면 공허해지겠다. 행운의 숫자 : 17, 54

43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평함은 없을 것이다. 55년생 세분화 할수록 이름다. 6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진행하기에는 이르다. 79년생 소신껏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다. 91년생 절충의 기회이다. 03년생 핵심 가치를 간과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5, 57

44년생 인공효보요, 사뭇구경의 원리 속에 기막힌 인연임을 알게되리라. 44년생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발전적이다. 56년생 68년생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만사가 틀어지거나 망설이리라. 80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92년생 범위를 벗어나면 서로가 곤란해진다 것을 잊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3, 56

45년생 구색을 다 갖추다보면 특별함을 도모하기 힘들다. 45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57년생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69년생 수을 한다면 원만해질 수 있겠다. 81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93년생 미리 벌어진 틈을 잘 메워 놓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69

46년생 잠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라. 46년생 발뻘뻘 쳐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58년생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양상이다. 70년생 차원이 다른 세계이다. 82년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94년생 미혹되어 제대로 걸러들면 큰장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아. 행운의 숫자 : 40, 84

47년생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7년생 잠고한다면 참된 결론에 이른다. 59년생 특별한 방법이라야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71년생 타산적으러써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83년생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95년생 범위를 확대시켜야만 많은 것을 아우를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5, 86